## 지혜의 보고 佛書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7.28~2016.8.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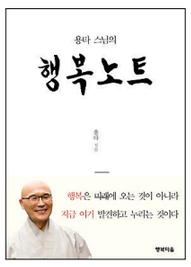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불교입문-도표로읽는 | 이자랑 | 민족사 |
| 2 |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 현담스님 | 도서출판선 |
| 3 |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 설정,박원자 | 나무를심는사람들 |
| 4 | 틱낫한기도의힘 | 틱낫한 | 불광출판사 |
| 5 |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 혜민 | 수오서재 |
| 6 |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 지원스님 | 민족사 |
| 7 | 스님의 비밀 | 자현/석공 | (주)조계종출판사 |
| 8 |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원시불교 | 나카무라하지메/일영 | 문예출판사 |
| 9 |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 | 지찬스님 | 들녘 |
| 10 |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 미 | 불광출판사 |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발견하고 누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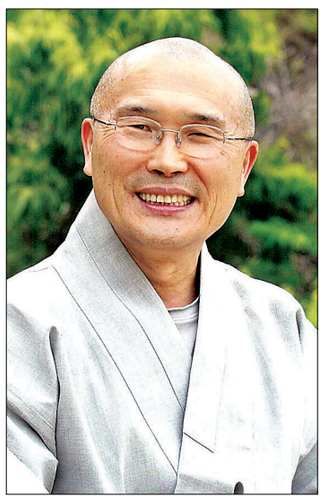
## 용타 스님의 행복노트

**용타 스님 지음 | 행복마을 펴냄 | 1만 5천원**




이 책은 동사섭 프로그램을 60강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며 하는 일을 간단하게 둘로 나누면 마음속의 일과 마음 밖의 일이 있다. 그 둘 중 동사섭은 마음속의 것을 다룬다. 저자가 지도하고 있는 동사섭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속살이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치밀하게 다뤘다. 이 책은 동사섭 프로그램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소개해 동사섭 수련의 교과서나 복습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자인 용타 스님〈사진〉은 책 속에서 "올해로 37년 된 동사섭 프로그램은 줄곧 업그레이드되었다. 하지만 그 지향점은 초지일관 우리 모두의 행복, 그것 하나였다. 행복은 동사섭의 목적이기 전에 인류의 목적이다. 지구의 70억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해지기 위해 아침부터 바쁘게 지낸다. 행복해지려고 마음속으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마음 바깥에서는 생각한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는 일을 간단히 둘로 나누면 마음속의 일과 마음 밖의 일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동사섭은 마음속의 것을 다룬다. 눈에 드러나기로는 마음 밖의 일이 월등하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 밖의 일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마음의 투영이다. 영화 필름이 먼저 제작되고 나서 영화가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속 작업이 선행된다. 즉 선행되는 속살이가 부실하다면 밖살이가 충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사섭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속살이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치밀하게 다루어 왔다. 이 책은 동사섭의 속살림법을 세분화시켜 안내하고 있다.



**동사섭 프로그램 60강으로 세분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동사섭 소개**
**수련이나 복습 도구로 사용 가능**
**동사섭, 마음속 행복 추구 다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수행의 길을 걸어오면서 거듭 확인한 것은 혼과 몸으로 경험해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야말로 예술을 뛰어넘는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섬세한 붓질로 탄생되는 그림 한 장, 수많은 악기가 어우러지는 음악 한 소절에 감동하지만, 그 어떤 색채보다도, 그 어떤 화음보다도 미묘하고 섬세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은 입술 위에 슬며시 번지는 미소 하나로, 혀끝에 스치는 단어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 끝없이 추락하기도 하고 끝없이 고양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다. 천진무구한 갓난이의 마음이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마음으로 추락한다. 그런가 하면 동서남북도 모르던 갓난이의 마음이 궁극의 지혜와 지고한 사랑을 지닌 부처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려가기도 한다.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이 우리의 의식이며 우리의 마음이다.

무궁무진한 변화를 겪는 우리들 마음을 궁극의 경지로 성숙시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바른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의 반복적 학습이다. 바른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깨달음(先悟)이라고 한다면, 그 이해의 반복적 학습을 닦음(後修)라고 하겠다. 바른 가치관에 대한 이해는 한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것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닦음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김연아 선수의 기막힌 스케이팅에 뜨거운 갈채를 보낸다. 빙판 위의 그 모습이 되기 위해 김연아 선수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스포츠서 하나의 기예를 익히는 데에도 그러한데,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는 데는 얼만큼의 정성이 필요할까? 우리들은 지금껏 엄청 애쓰며 살아왔다. 다만, 성장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추락하려고 애써왔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눈만 뜨면 그 즉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어 하면서 분별하고 차별했으며, 자질구레한 이익을 두고 이기심을 갈고 닦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이루고,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갈구하면서 쉴 새 없이 불만 수업을 쌓아 왔다. 말하자면 행복을 학습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불행을 학습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불행에 익숙해져서 불행이 쉬워지고 불행한 것이 인생이려니 여기면서 행복학습을 성가시거나 별스런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입으로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행복의 인(因)을 심은 것이 아니라 불행의 인을 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행복학습을 시작하고 행복의 인(因)을 심어야 하지 않을까?

저자는 "세상에도 완고한 것이 사람의 마음 같지만 우리의 마음처럼 소프트한 것도 없다. 짐승들은 타락하거나 성장하거나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하고 성숙한다. 인생길서 만난 한 마디의 가르침이나 한 줄의 글, 한 번의 경험 또는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도 우리들의 인생은 섬세하고 획기적으로 변화된다. 참으로 신비하고 신비한 것이 우리들 마음이다. 이 책이 행복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다정하고 친근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더 바랄 것 없이 기쁠 것"이라고 출간 소회를 밝혔다. 이 책은 동사섭 프로그램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소개했다. 그러나 60개 강의가 각기 완결적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염불 수행자들의 필독서

## 무량수경 심요

**정공법사 강해 · 허만항 편역**
**비움과 소통 펴냄 | 3만 3천원**




이 책 〈무량수경 심요〉는 하련거 대사께서 무량수경 5종 역본을 회집한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무량수경 회집본, 또는 선본)을 경문으로 삼아, 그 요점을 풀이(요해)하고 강의록(강해)을 첨부한 국내서 번역된 가장 상세한 무량수경 해설서이다. 정토3부경 가운데 하나인 무량수경은 중국에 전래된 이래로 잇따라 12차례 번역됐는데, 7종의 번역본은 실전되었고, 현재 대장경 중에는 5종의 역본이 존재한다. 송대의 왕룡서 거사와 청대의 위원 거사 모두 회집본을 지었으나, 그들의 회집이 미진해 비로소 하련거거사의 회집본이 있게 됐다. 이 책은 1932년에서 1935년까지 보살계를 받은 불제자인 산동성 운성현의 하련거 거사(법명 자제)께서 대장경에 수록된 5종의 원역본을 회집해 이룬 것으로 전체 경전을 총괄하여 48품으로 나누었다. 무량수경 회집본 요해는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해(대경해)〉 저자인 황념조 거사의 어록집 〈심성록〉에 실린 〈무량수경 선본의 대사인연〉을 번역해 게재했다. 이것은 무량수경 회집본 전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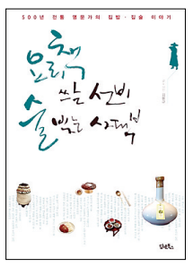
무량수경 회집본 강해는 정공 법사께서 1998년에 저술한 〈대승무량수경간주이해〉를 기본 텍스트로 삼고, 1991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서 강연하고, 1994년 징메이 화장도서관 싱가포르 거사림서 펴낸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과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강기〉를 보조 텍스트로 삼아 편역했다. 부록에는 무량수경 회집본을 증명해준 해현 노화상의 일대기와 가르침을 담았다.

115세로 왕생한 해현 화상께서는 무량수경 회집본이 말법시대 수행의 소의경전임을 일생 전체를 통해 증명해준 정종의 대덕으로, 삼불사서 2014년 간행된 〈내불영사집〉 서문을 번역해 실었다.〈무량수경 심요〉는 이생에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극락정토에 화생해 무생법인을 증득한 후 마침내 성불하려는 염불 수행자들의 필독서이다. **김주일 기자**

# 전통 이상을 만드는 종가의 미래

## 요리책 쓰는 선비, 술 빚는 사대부

**김봉규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 7천원**




〈요리책 쓰는 선비, 술 빚는 사대부〉는 미식가와 애주가를 사로잡는 종가 음식 43가지를 소개하는 음식 책이기도 하다. 종가의 고장 안동부터 의정부와 모악산 사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과상, 제사상, 손님상 차림은 물론 반주 상차림까지, 좋은 재료만 쓰고 아낌없이 베푸는 종가 음식 기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옛 지혜가 살아 숨 쉬는 술상과 밥상 차림에서 食도락, 酒도락을 느껴 보자. 읽다 보면 혀끝에 와 닿는 조상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 간장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 맛일 거야. 금방 지은 고슬고슬한 쌀밥에 우리 집 전독간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이 없어도 맛나게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거든."

### 미식가 사로잡는 종가음식 43가지
### 종가문화, 과거와 현재가 만난 지점

명인 안동소주는 세계적 위스키 생산을 목표로 2015년 오크통 20리터짜리 80통을 수입해 안동소주 숙성을 시작했다. 박 명인은 안동소주가 어떤 위스키보다도 좋은 술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 종가 문화를 지키는 건 종손뿐만이 아니다. 종손, 종부, 남녀와 관계없이 지금도 내림음식과 내림술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딸에서 아들에게, 아들에서 딸에게로, 딸에서 딸에게로 등등, 전통은 다양한 갈래로 전해진다.

대중에게 내림음식과 내림술을 소개하려는 후손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전통 부각'을 판매하는 거창 사증종가와 '죽염장'으로 유명한 담양 양진제 종가처럼, 기업이 된 종가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다. 이제 종가의 문화는 사라져 가는 소중한 것들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동안 종가의 이미지가 전통, 고급 음식에 국한돼 있었다면 이 책에서는 현대적인 종가, 대중 지향적인 종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이것이 수행의 길이다
중국 동화선사 만행스님 수행서
6조 혜능, 람몽대사와의 기연!!
이론은 실천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돌아갈 길을 단축시켜 걷게 할 뿐이다.
속세의 일에 성심성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무문관 안에서도 성심성의로 임할 수 있다.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무문관 장좌불와!! 생과 사를 넘나든 혹독한 수행.


7년을 동굴 속에서 장좌불와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 마음의 달이고 출관한 뒤에 동화사를 복원 중창하면서, 주간에는 신도들과 함께 동화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신도들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항복기심, 선용기심, 기심무주 세권의 책으로 출간.




마음의 달 Ⅰ·Ⅱ ▶ 가격 : 각권 1만원
7년간의 무문관 수행끝에 성품을 본 만행스님의 수련과 깨침의 과정
그리고 1천명이 항시 수도할 수 있는 수행도량 동화선사를 창건하게 된 보살행 이야기.

항복기심 ▶ 가격 : 18,000원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탐·진·치·만·의에 물들기 쉬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음은 금방 광명해지고 환희로 가득 찰 것이다.

선용기심 ▶ 가격 : 30,000원
자신의 마음을 착하고 좋게 쓰는 것이다. 마음을 선용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통과 액운을 이겨나가고 슬퍼서 마음 상하고 병드는 일이 없어진다.

옴 그림천수경




42개 명호를 가진 관세음보살님의
42개의 손모양과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과 역할이 녹아있는 천수경!
그림을 통해 마치 불보살님을 친견하듯
그 진실어의 위신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대유학당 | 대명스님 엮음 | 349 쪽 |
신국판 | 값 15,000원

뭇 생명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




손에 잡히는 경전시리즈 12

천수경, 42수진언,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 가르침의 정수이다.
주머니 속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움을 느끼고 또 느껴보자!

대유학당 | 설정스님 | 192 쪽 |
가로 9.5㎝ × 세로 15.5㎝ | 값 10,000원

하락리수(河洛理數) 프로그램 CD




하락리수는 사주를 주역의 괘효로 환산하여, 주역으로 풀이한 평생운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하락리수 CD는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일일운세와 궁합을 일까지 확대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미리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유학당 | USB락, 프로그램메뉴얼 |
가격 550,000원

대유학당 ☎ 02)2249-5630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